



참조용 문서

**KO**

원본

## 중앙위원회 의장 보고 -월터 알트만 목사

1. 의장님, 총대, 참가자,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눅 8:11).
3. 나는 오늘 책임과 성찰, 도전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눌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우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먼저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의 의미를 생각해보았습니다.
  1.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서 부산총회까지 함께 걸어온 발걸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4.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말씀(마 8:11; 눅 13:49)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지(Holy Land)를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서에서 동으로, 곧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부산으로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남에서 북으로 이동해왔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지구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5. 우리는 지구촌 공동체로 여기 모였습니다. 앞서 오늘 개회식에서 우리는 청년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지난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서 봉사자로 섬겼던 브라질 출신의 젊은 토머스 강(Thomas Kang)이 제공한 증언의 깊은 의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토머스의 선조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북한 출신이며 그의 어머니는 남한 출신입니다. 우리는 지구촌 공동체로서 우리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신앙을 증언하기 위해 지구의 모든 곳으로부터 한국에서 와서 이곳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6. 또한 먼저 우리를 환대하고 이 특별한 에큐메니칼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한 한국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내가 속한 브라질 루터복음교회 본부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온 여정은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7. 일 년 전 나는 한국의 부산과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한국 준비위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나는 한국 교회의 환대를 받았으며, 한국 교회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큰 기대를 갖고 정성을 다해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산총회를 위해 인력, 기술, 물류, 재정 등 막대한 자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왔다는 사실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성을 증언해줍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다채로운 에큐메니칼 모자이크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각자 자신의 언어로 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의 의미와 힘을 가장 깊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9. 그러나 우리의 다양성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다양성보다 더 폭넓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민족, 문화, 전통, 기독교 교파를 대표합니다. WCC 는 역사적으로 여성, 원주민, 장애인, 청년들의 참여를 소중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WCC 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항상 보다 더 넓은 포용성을 추구하고 차별적인 관행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총회는 다양성의 축제입니다.

10. 하지만 우리의 다양성이 우리가 일치를 만들고 추구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와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비전은 다양성을 풍성함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를 바로잡아주거나, 적어도 그런 가능성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더 나은 상호보완과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처럼(막 10:35-45), 우리는 “우리의 것”이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11. 또한 우리는 힘의 유혹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역사상 이 유혹은 다양한 인간관계와 국가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인류를 인종차별, 가부장제도, 경제적 착취, 다양한 형태의 배척과 억압과 같은 여러 죄악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교회와 종교들 사이의 악한 경쟁은 때로 극단적으로 물리적 폭력, 전쟁, 테러를 발생시켰습니다. 우리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참회의 형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12.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서의 다양성이 우리가 서로를 보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성이 어떻게 하나의 기독교 가족으로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지를 계속적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교회 일치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 이웃의 은사, 경험, 확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진실되고 신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내용에 대해 성령께 귀를 기울이듯이 열린 마음을 계속 가지길 원합니다.

13. 물론, 우리의 삶이 이런 이상적인 상태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경쟁의 정신이 지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은 우리보다 앞서 에큐메니칼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이 품었던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암스테르담(1948 년)총회에서 우리의 선배들은 함께 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천명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상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와 단체들이 우리를 총대와 파견 대표자들로 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상을 보존하고 추구할 소명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전 총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총회는 우리의 핵심적인 신념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치 주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며 일치 성명서를 채택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14. 바울 사도는 우리의 헌신적인 일치 운동에 대한 일관된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해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5-6).

15. 교회의 일치와 함께 다양성을 숙고할 때 바울 사도는 많은 지체가 단 하나의 몸을 이루는 풍성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고전 12:12). 이런 의미에서 에큐메니칼 총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치를 축하하는 행사이며,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함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 현실 속에서 더욱 강하게 일치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16. 마지막으로, 이 성찰 주제의 서두에 인용한 성경구절은 우리를 더 심오하고 종말론적인 차원, 곧 우리를 이스라엘 족장과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잔치로 불러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합니다. 분열 때문에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 곧 천국잔치를 고대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 II. 지난 WCC 총회 이후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17. 이 시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과도기였습니다. 먼저 유력한 선진국 금융업계의 무책임한 관행, 더 나아가 범죄행위 때문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들 선진국들은 이른바 자유화 정책을 통해 금융업계와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공적인 규제라는 바람직한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금융위기를 언급한 이유는 이것이 WCC 와 관련하여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 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실업 증가와 기아에 내몰리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이 위기는 많은 교회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WCC 를 비롯한 전 세계의 에큐메니칼 기구를 지원할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8. WCC 운영 조직 구성원들의 귀중한 협력과 함께 WCC 운영진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 위기 때문에 더 많은 회원교회들이 WCC 의 지원에 필요한 분담금 납부의무를 수행해야 했고, 회원교회들이 낸 분담금 총액은 이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스위스 프랑의 환율 하락을 고려할 때 운영진과 운영 조직들은 사무실과 직원의 축소, 기존 프로그램의 개발 인력 축소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WCC 의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고무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일부 교회들은 WCC 가 지원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에 총대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19. 그럼에도, 운영진의 조치와 직원들의 헌신과 이해 덕분에—우리는 이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WCC 는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응답해야 할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WCC 를 어느 정도로 지지하고 강화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20. 이 시기의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는 WCC 연금기금(Pension Fund)의 적자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적자 증가 추세는 역전될 전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연금계획으로의 전환, 연금기금 참가자의 기득권 존중, 새로운 건축을 통해 제네바 에큐메니칼 센터의 부동산을 추가로 개발하는 사업을 통해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장기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1. 또한 우리는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와 부산 총회 사이에 WCC 총무를 교체했습니다. 사무엘 코비아 총무의 후임으로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박사가 총무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실과 엄청난 헌신을 통해 WCC 를 섬겼고 또한 큰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회원교회와 에큐메니칼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우리의 형제인 두 사람이 그 동안 에큐메니칼 운동에 봉사해준 것에 대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중앙위원회와 WCC 전체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22.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변화는 앞서 언급한 것들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이것은 세계 종교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우리는 이미 현대 세계의 변화하는 종교 환경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우리는 세계적 차원에서 종교의 이동과 파편화를 목격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해서는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동쪽과 남쪽으로 점차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서구의 많은 국가, 특히 유럽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의 수가 줄고 있고, 지속적인 세속화 과정과 지난 수 십 년간의 무신론적 교육의 유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종교 단체를 떠났습니다. (중동지역에서는 지역 내 갈등과 그로 인해 발생한 기독교에 대한 반대 분위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수가 크게 줄었고, 이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이런 감소 추세와 대조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꾸준히,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3. 오순절 교파는 비록 매우 비조직적인 운동 형태를 띠었지만 대폭 성장하여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주요 흐름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으나 아직 WCC 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교파에 속한 점점 많은 교회들이 WCC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거나, 적어도 우리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WCC 가 처음 창립했을 때, 또는 적어도 WCC 가 많은 정교회의 가입을 환영했던 1961 년보다 세계 기독교를 더 많이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24. WCC 가 이런 도전과제에 대응한 한 가지 방법은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모임과, 영적인 변화와 대화를 위한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라레 총회(1998 년)에서 콘라드 레이저 WCC 총무는 <WCC 의 공동의 이해와 비전>이라는 공식문서에 영감을 받아 WCC 의 경계를 뛰어넘는 만남과 대화를 위한 포럼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몇 년 후 더 폭넓은 기독교에 속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상호존중의 정신을 키우고 공동의 과제를 함께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기독교 포럼(Global Christian Forum)이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기독교 포럼의 1 차 회의는 케냐 리무루(2007 년)에서, 2 차 회의는 인도네시아 마나도(2011 년)에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25. 또 다른 중요하고 획기적인 사업은 WCC, 종교간 대화 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이 2011 년에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적 증언>이라는 공동성명서를 승인한 것이었다. 최근 개최된 글로벌 기독교 포럼 탐색 회의는 이들 세 단체와 세계오순절교회협의회(World Pentecostal Fellowship)가 교회들 간의 관계에 관한 안내지침을 담은 가치 <다양한 세계 기독교 신앙 속에서의 기독교적 증언>이라는 비슷한 문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6. 글로벌 기독교 포럼과 같은 선도적인 활동은 WCC 의 대안으로 간주해서도 안 되며, 또한 그런 것으로 발전시켜서도 안 됩니다. 두 단체 간에 조인된 양해각서에는 두 단체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WCC 는 여전히 폭넓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수행하는 특별한 기구입니다. 때로 교회들은 이른바 “역사적” 교회의 부정적 경험과 아울러, 두드러진 종교적 이동을 고려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차적인 것을 간주하여, 자기 교회의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교리나 조직 문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치를 향한 에큐메니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회가 겪은 어려움과 깊은 실망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산총회는 현재의 분열된 기독교를 볼 때 훨씬 더 긴급한 목표인 교회의 에큐메니칼 목표를 다시 천명할 수 있는 꼭 필요하고,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각 교파의 입지를 강화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에큐메니칼 운동을 약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심화시키라는 도전입니다. 일치를 향한 헌신이 소홀해진다면, 교회의 증언은 신뢰와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큐메니칼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신앙이 세상에서 “종교 시장”의 상품으로 점차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III.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새로운 것 밖에 없을까요?

27.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며, 그런 역사의 연속성을 계속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누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도(the way)”(행 9:2)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여정이라고 표현해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더 이상 첫걸음을 내디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미 수많은 선한 발걸음을 걸어서 오늘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29. 나는 중앙위원회의 한 회의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에큐메니칼 여정과 WCC 의 역사에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갔던 사람들의 유산을 숙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지난 세기의 초기에 개최된 주요한 에큐메니칼 세계대회-에딘버러 대회(1910 년)의 선교, 스톡홀름 대회(1925 년)의 삶과 사업, 로잔 대회(1926 년)의 신앙과 직제-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교육에 관한 사업도 우리의 역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30. 이런 모든 흐름이 여러 시기에 함께 모여서 WCC 를 만들거나 합류하게 되었으며, 여전히 에큐메니칼 운동의 필수적인 기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WCC 와 에큐메니칼 운동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31.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강조가 없다면 선교는 그 초점을 잃을 것이며 복음의 증언도 왜곡될 것입니다. 봉사(diakonia)가 없다면 선교와 기독교교육은 신뢰할 수 없는 모험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신학적 성찰과 교리에 관한 대화가 없다면 기독교 변종은 무질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와 디아코니아가 없다면 신학적 성찰과 교리에 관한 대화는 추상적이고 작위적인 노력이 될 것입니다.

32. 다양한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이용하여 변화를 이룰 수 있고, 또한 변화를 이루어야 하며 특별히 교리, 기독교 교육, 선교, 디아코니아를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주제들 중 하나가 다른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거짓된 이분법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통전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며 또한 에큐메니칼 여정도 통전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에큐메니칼 여정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과 성경으로부터 배웠듯이,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고전 13 장). 사랑이 없다면 설령 산을 움직일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2 절).

33. 크레테에서 개최된 최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여러 지역에서 지난 수 년 동안 시행한 사업의 결과물로서 몇 가지 문서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번 총회에서 이 문서들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34. 그에 따라 중앙위원회는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라는 문서를 “연구하여 공식적으로 응답”할 것을 교회에 권고했습니다. 이 문서는 WCC 의 잘 알려진 기초 문서인 <세례, 성만찬, 사역>에서 제시한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들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35. 또한 중앙위원회는 <함께 생명을 향하여: 변화하는 환경에서 선교와 복음주의>라는 문서를 채택하여 이번 부산총회의 배경자료로 추천하였습니다.

36. 이번 총회의 중심 주제들 중 하나는 “평화”입니다. 정의와 함께하는 평화, 곧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헌신 WCC 의 창립 초기부터 WCC 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서 만났을 때, <폭력극복을 위한 10 년 운동>이 중반기에 접어들어 교회에서 수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011 년 5 월 자메이카 킹스톤에서 개최된 국제에큐메니칼평화회의에서 이 운동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평화회의가 폭력과 전쟁으로 고통 당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발표한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선언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며 이번 총회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37. 그러므로 우리가 에큐메니칼 여정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명에 대한 통전적인 접근방식으로 정의할 때, WCC 를 형성하는 여러 흐름들은 우리의 프로그램이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뚜렷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경험을 묘사한 성경구절을 통해 끊임없이 영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42).

#### IV. 오늘날과 과거를 비교할 때, WCC 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잃어버렸는가?

38. WCC 가 과거보다 세속 매체로부터 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WCC 가 특히 1970 년대와 80 년대에 남미의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심하게 박해를 받던 사람들을 지원하는 인종차별철폐 프로그램(Programme to Combat Racism)과 인권 프로그램(the Human Rights Programme)을 시행했을 때 우리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39. 세계화된 국제관계 상황 때문에 세속 매체들은 WCC 가 쉽게 가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다른 상황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WCC 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평화에 관한 많은 성명서들은 세속 매체들의 관심을 쉽게 끌지 못했고, 반면 테러공격 이미지와 전쟁이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40. 우리는 우리가 글로벌 경제질서의 강고한 메커니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비판적으로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제 메커니즘은 세계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비극적인 결과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세계의 극심한 가난을 극복하라는 소명을 분명히 하고, 이런 방향으로 분명한 정책과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런 소명은 완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무장과 호전적인 대결을 위해 일상적으로 배분되는 자원보다 훨씬 적은 자원으로도 이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41. 하지만 WCC 가 자신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상실했다고 확신하는 것은 성급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WCC 총회뿐만 아니라 중앙위원회, 실행위원회, 또는 국제문제위원회의 회의에서 그리고, WCC 총무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 WCC 는 중요한 공공쟁점에 대해 성명서와 회의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혹자는 WCC 가 다른 많은 주제들 때문에 일반인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관심을 줄이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회의를 할 때마다 긴급한 여러 관심사항들을 WCC 공동체에 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했습니다.

42. 그러나 최근 WCC 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확실히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의 조국 브라질의 사례부터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2011 년 트베이트 WCC 총무가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군사독재 시절(1964-1985) 브라질의 정치범들을 고발하는 소송사건에 관련된 수천 건의 문서를 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문서들은 제네바의 WCC 자료보관소에 수 십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는 이 문서는 WCC 가 후원하는 인권 프로젝트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몰래 복사하여, 장로교 목사 제이미 라이트의 긴밀한 협조하에 파울로 에바리스토 아론스 추기경의 상파울루 대교구에 제공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명칭은 “브라질: 네버 어게인(Brazil Never Again)”이었습니다. 올해 브라질의 매체는 이것을 중요하게 보도했으며, 최근 구성된 국가진실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의 웹사이트가 상파울루에서 개설되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이 프로젝트에 관한 90 만 페이지 이상의 문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개막 행사 때, 일반인들은 WCC 가 벌이는 이 운동의 대의와 사업을 지지했습니다.

44. 두 번째로, 유엔이 국제무기거래 조약을 승인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WCC 는 전 세계에 폭넓은 교회협의회를 조직하여 각국 정부가 이 조약을 찬성하도록 활동을 벌인 결과, 결국 유엔이 이 조약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총회가 뉴욕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을 때, WCC 는 다른 비정부기구(NGO)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각국 정부 대표자들이 견고하고 효과적인 조약을 지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WCC 는 많은 국가의 대사와 대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매년 전 세계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국제무기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긴급하다는 확신을 전달했습니다. 강력한 상업적 이익단체들이 이 조약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무기거래를 규제하는 조약의 시행하는 과정을 지금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나나 거래를 규정하는 조약이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에 존재했지만 무기거래 조약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명국들이 비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교회의 노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45. WCC 총무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온 다양한 활동 중에서, 종교간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대표자들이 최근에 수행한 공동 행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활동사례 중 하나는 종교적 뿌리로 인한 폭력으로 많은 그리스도인과 이슬람교인이 희생된 나이지리아를 함께 방문한 것입니다.

46. 지난 10 년 동안 WCC 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동행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콜롬비아가 비슷한 경험을 하도록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수십 년 동안 복잡한 영토분쟁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지금은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47. 보다 최근에는 WCC 가 주도하는 또 다른 일련의 사업들이 신중한 분별력을 통해 시리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WCC 는 최근에 러시아, 미국, 서구 유럽 국가와 시리아에서 온 교회지도자, 그리고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 시리아 유엔-아랍 연맹 합동 대표자 라크다르 바라히미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시리아에 대한 외부의 군사개입을 막고, 시리아 갈등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군사개입은 예측불가능하고, 시리아 전체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국제 언론이 주목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48. 그 밖의 여러 사례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WCC 가 오늘날에도 국제문제에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V. 우리는 부산 총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말해야 할까요?

49. 모든 총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록 충분하지 않지만 이미 가시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축하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의 영원한 소명인 일치에 다시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 식탁을 통해 기념하는 온전한 일치라는 목표를 잃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다시 확인하고, WCC 헌장을 제정한 암스테르담 총회 대표자들이 말한 “우리의 목적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를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50. 부산 총회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두 번째 총회입니다.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으로 소수파에 속하며 다수파 종교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들 간, 민족 간,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종교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지하는 종교의 상호존중과 종교간 대화, 아울러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적 가치관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보호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51. 우리는 분단된 한국에서 모입니다. 한국인들은 지속적이고 정의로운 평화 없이 지난 60 년 동안 정전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 분단의 고통을 경험하고 통일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개인과 민족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손과 마음을 들어올릴 것입니다. 시편 85 편 10 절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번 총회는 총회 주제인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를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52. 나의 보고와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서 부산총회까지의 업무보고가 이번 총회에서 수락되면,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와 의장들의 임기가 종료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WCC 와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해 보여준 헌신, 통찰, 확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며칠 후면 새로운 의장과 새로운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선출될 것입니다.